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R. 스토틀 지음 | 한화룡, 정옥배 옮김 | IVP

이 책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1993년도에 번역·출간되었던 것을 개정하여 'IVP모던 클래식스'로 출간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20년 이상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아직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그만큼 여기서 강조되는 '이중 귀 기울임'(고대의 말씀(Word)과 현대 세계를 관련짓기 위해 둘 다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의 요청은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하며 유효하다. 저자는 '이중 귀 기울임'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오늘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러한 귀 기울임에는 두 가지 주된 긴장이 공존한다. 첫 번째는 '그때'(과거)와 '지금'(현재) 사이의 긴장이며, 두 번째는 '지금'(현재)과 '아직'(미래) 사이의 긴장이다(13p). 필자는 이것을 읽으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양쪽에 대한 긴장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외줄타기' 이미지가 떠올랐다. 어느 한쪽에 대한 긴장을 푸는 순간 균형을 잃고 떨어지게 된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외줄타기의 진수를 보여 준다.

서론은 첫 번째 긴장을, 결론은 두 번째 긴장을 다루

며, 그 사이에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스물한 개의 장이 나온다. 각 장마다 다섯 가지 주제(복음, 제자, 성경, 교회, 세상)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IVP)과 한 쌍을 이룬다. 존 스토틀의 저작을 읽어왔던 독자들은 마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서론을 시작한다. "동시대 사람들과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역사적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질문의 핵심이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실성'에 있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복음'이 거짓(진리성)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공감(현실성)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20p). 필자는 이러한 '현대성'의 도전을 교회현장에서 매년 경험한다. 특히 다음세대 앞에서 기독교는 마치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어 공간만 차지하는 애플리케이션 같다. 복음을 현대화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자는 복음을 너무 현대화한 나머지 원래의 복음을 알아보기 못할 정도가 되는 것 또한 경계한다.

동시대 사람들과 동떨어지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역사적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균형이 1부(복음)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답한다. 그것이 '인간의 역설적 상황(1장)'이다. 지킬 박사(존엄성)와 하이든(부패성)을 동시에 가진 것이 인간인데, 그러한 역설적 상황에서 자유(2장)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3장)와 부활(4장)이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곧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호소력 있는 주제인 '자유'를 제시함으로써 징검다리를 놓는다. 또한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5장)으로 모시는 자유임을 밝힌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만 받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는 삶이다. 저자는 그러한 헌신이 지적, 도덕적, 소명적, 사회적, 정치적, 전 세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0p).

2부에서는 복음에 이어 제자도를 다룬다. 특별히 '이중 귀 기울임' 안에서 제자도를 해석함으로써 하나님(말씀)과 세상(고통, 좌절, 분노) 양쪽에 귀 기울이는 것(6장)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또한 '지성과 감정'(7장)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때 '신앙과 이성'이 통합됨을 보여 준다. 8장(인도, 소명,

사역)에서는 우리가 '성숙이원론'에 얼마나 뿌리 깊게 매여 있는지를 보여 주며,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고백한다. 특별히 저자가 '사역'을 중세 성직자들이 가졌던 개념(사제직을 유일한 소명으로 간주)으로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그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목사직만을 지칭함으로 쓰이는 것은 기독교에 해롭다고 생각한다(187p). 우리는 이미 그러한 폐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부르심(소명)에 대한 오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지!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표지가 사랑임을 강조하며,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부에 '성경'에 대한 존 스토틀의 탄탄한 확신이 가득 담겨 있다. 그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상을 개탄하며 다시 성경을 존중하며 읽을 것을 요구한다. 저자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모르는 무지하고 미성숙하며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이 판치는 원인을 책임 있고 철저하며 균형 잡힌 성경 설교자의 부족으로 꼽는다(226p). 그런 이유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다음 세대의 디모데(10장)'이다. "만연하는 유행의 바람에 휩쓸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가운데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성경을 세상과 관련시키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실한 강해 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한 젊은 복음주의자 남녀들은 어디에 있을까?"(227p)라고 묻는 그의 간절함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특별히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말씀을 조옮김하기(12장)'이다. 저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세계'와 '현대 세계'가 문

화적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한다(246p). ‘그때 거기(성경의 세계)’와 ‘지금 여기(현실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반드시 이 두 세계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문화적 조옮김’을 제시한다. ‘문화적 조옮김’이란 본문에 나오는 본질적인 계시(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를 밝혀 내어, 하나님이 그 계시에 담기로 결정하신 문화적 형태로부터 분리한 뒤, 그것을 적절한 현대의 문화적 용어로 다시 옷 입히는 것이다. ‘음악적 조옮김’이 선율과 화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조만 바뀌듯이, ‘성경적 조옮김’도 계시의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258p). 지금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성경적 조옮김’을 통해 풍성한 연주를 세상에 선사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4부에서는 골동품처럼 변해 버린 교회를 논의한다. 4부 첫 장인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14장)’은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민감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293p).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간의 삼중 열망(초월성, 의미, 공동체 추구)을 설명하며, 그것이 교회(예배, 가르침, 교제의 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저자는 많은 교회가 그릇된 자아상을 가져 병에 걸렸다고 한탄한다(15장).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정체성),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도(소명) 파악하지 못했다.”(319p)는 저자의 일침에서 뜨끔하지 않을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 ‘교회의 이중 정체성(성육신적 기독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이중 귀 기울임’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지역교회가 이러한 이중 정체성(신학적으로)을 가지고 교회를 조직하며(구조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말로), 그대로 살 때(도덕적, 영적으로) 복음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한다(337p).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역교회를 재정비할 필요

가 있다. 16장은 부흥과 개혁을 결합시킨 표현으로 ‘갱신’을 사용하며, 지속적인 교회 갱신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갖기 위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성실한 강해설교자답게 성경에 대한 주해가 꼼꼼하여, 독자로 하여금 단순한 명제 나열이 아닌 깊은 묵상의 열매를 맛보도록 이끄는 존 스토틀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은 5부(세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저자는 ‘선교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충분히 놓음으로써, 독자 스스로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선교적 강조점’을 발견하게 한다. 그 강조점은 결국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를 나타낸다.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에 그 뿌리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교적 백성을 만들어 내시고 선교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적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한다.”(432p)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선교하는 자가 바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를 위해 ‘이중 귀 기울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모든 진정한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다. 그것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동일화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한 선교는 우리의 기독교적 확신, 가치관,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475p)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동일화하는 것’ 필자는 이러한 표현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문구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책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저자는 ‘세계관에 대한 성육신’을 말하며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IVP)을 언급한다. “제임스 사이어는 그 책의 부제를 ‘기본적인 세계관 목록’이라 붙이고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

의 범신론적 일신론 등의 의미를 개괄한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고의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이 그의 요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려면 일종의 성육신이 필요할 것이다.”(477p) 또한 저자는 ‘사고의 세계(세계관)’에 이어 ‘마음의 세계’를 언급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 곧 그들의 고뇌와 소외의 세계에 들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478p) 저자가 강조한 이 두 가지(사고와 마음) 세계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서론을 ‘그때’(과거)와 ‘지금’(현재) 사이의 긴장으로 시작했다. 결론에서는 ‘지금’(현재)과 ‘아직’(미래) 사이의 또 다른 긴장으로 끝낸다(499p). 개인적으로 이러한 두 긴장을 서론과 결론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섯 가지 주제들을 배열한 구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다른 저작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는 ‘균형 잡힌 기독교 (Balanced Christianity)’의 모습이 목차만으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존 스토틀의 강점이라고 본다. 그가 평생에 걸쳐 경계한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균형이 깨진) 기독교’이다. 이 책의 주제인 ‘이중 귀 기울임’은 바로 균형을 잡기 위한 외출타기의 긴장대인 것이다. 그 장대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거의 ‘이미’에 속해 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미래의 ‘아직’에 속해 있다.”(522p)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중간기’에 사는 자들이다. 그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들과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건져 내려 한다. 그 건

짐의 밧줄은 ‘이미-아직’ 그리스도인(성경적 현실주의)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에 똑같이 비중을 둔다(521p). 이러한 자들은 ‘이미’에 대한 기쁨과 ‘아직’에 대한 겸손이 동시에 나타난다.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과 겸손을 양손에 들고 있는 외출타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균형감을 잃고 땅으로 떨어져 흠먼지를 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책을 건네주고 싶다.



글 | 김영균

현재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오타와 사랑장로교회(OSPC)’의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사역중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목회학석사 영어과정(AIGS)을 밟았다. CTC(크리스천씽킹센터, 대표 유경상)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며,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다.